

KIA 전반기 5위... 강팀에 약하고 약팀에 강했다



'강약약강'의 전반기를 보낸 KIA 타이거즈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발돋움 다시 세운다. 42승 1무 40패. KIA는 0.512의 승률과 함께 5위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즌 내내 이어진 마운드 고민에도 화력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전반기였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하면서 새 판을 짜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특히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수들의 성적이 시원치 않았다.

새로 마운드를 구성한 선 놀린과 로니 윌리엄스가 합작한 이닝은 87.2이닝에 불과했다. 두 사람이 팀에 안겨준 승리도 5승에 불과했다.

두 외국인 투수의 부상과 부진이 이어지면서 KIA는 선발과 이닝 고민 속 힘겨운 뒷심 싸움을 했다.

선발 고민 속에서도 달라진 화력은 끝까지 가는 승부를 연출했다.

특히 5월에는 나성범·황대인·소크라테스 '나황소'를 앞세워 0.284의 팀 타율로 18승 8패, 0.692의 승률을 찍기도 했다. 물론 타선의 기복은 있지만 여전히 KIA의 믿을 구석은 화력이다.

'한방'의 힘도 가지고 있다. 2021시즌 팀출력 최하위(66개)였던 KIA는 전반기에 벌써 68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두 번의 등판에서 모두 비를 만나면서 험난한 KBO 데뷔전을 치른 토마스 파노니와 함께 놀린과 소크라테스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마침내 '외국인 선수 완전체'도 구성된다.

전반기를 보내면서 KIA가 얻은 숙제는 '강약약강'이다.

말 그대로 강팀에 약했고, 약팀에 강했다. KIA

SSG에 단 1승, 한화에는 9승 외국인 투수 부진 합계 5승 그쳐 '나황소' 앞세운 타격은 막강 4년 만의 포스트시즌 기대

는 1위 SSG랜더스와 9차례 만나 단 1승을 거두는데 그쳤다. 반면 최하위 한화 이글스와의 맞대결에서는 9전 전승을 장식했다.

2위 키움 히어로즈에는 5승 7패, 전반기 마지막 상대였던 LG 트윈스에는 3승 6패로 뒤져왔다. 두 경기 차 4위인 KT 위즈에도 3승 1무 6패로 열세를 기록했다.

시즌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에이스' 양현종을 내세운 개막전에서 LG 트윈스에 0-9 영봉패를 당한 KIA는 두 번째 대결에서는 2-3, 1점 차 역전패를 기록했다.

2패를 남긴 아쉬운 개막시리즈 이후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주중 3연을 펼친 KIA는 3경기를 모두 뒤집으면서 스윙승을 거뒀다.

상승세를 이어 문학으로 시즌 첫 원정에 나섰지만 KIA는 SSG와의 첫 대결에서 내리 3연패를 당했다.

'강약약강'의 흐름 속에서 두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은 반갑다.

KIA는 최근 3년간 두산에 11승 2무 35패(승률 0.239)의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승부가 계속되면서 뒷심 싸움에서 번번이 고개를 숙이곤 했다.

올 시즌 상황은 다르다.

KIA는 올 시즌 두산에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두산과의 원정 3연전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나성범

좋은 스윙승을 거뒀다. 2014년 6월 22일 잠실전 이후 2902일 만에 기록된 두산전 싹쓸이 3연승이었다.



황대인

지난 14일 LG와의 전반기 최종전을 치렀던 KIA는 18일까지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19일 챔피언십필드에서 후반기 준비에 돌입하는



소크라테스

KIA가 '강강'의 흐름으로 더 높은 곳에서 4년 만의 포스트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콜린 벨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이 지난 17일 일본 가시마 보조구장에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에 대비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축구 17년 만에 동아시아컵 우승 도전

한국·일본·중국·대만 풀리그 오늘 오후 4시 일본과 1차전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17년 만의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우승에 도전한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일 오후 4시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2 EAFF E-1 챔피언십 1차전을 치른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여자부의 첫 경기로, 이번 대회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이 풀리그 형식으로 경쟁한다.

당초 지난해 열리려던 동아시아컵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됐고, 개최지도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경됐다.

한국의 목표는 물론 우승이다. 우리나라는 여자

부 원년인 2005년 초대 챔피언을 차지한 이래 6번의 대회에선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동아시아컵 여자부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북한 그리고 한국의 이번 대회 첫 상대인 일본(이상 3회)이다.

일본은 2019년 부산에서 열린 직전 대회에서도 3전 전승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당시 한국은 마지막 3차전인 한일전에서 후반 43분 페널티킥 골을 내주고 0-1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지난 패배의 실욕과 더불어 17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한일전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는 각오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으로 보면 이번 대회 참가국 중 일본이 13위로 순위가 가장 높고, 중국(16위), 한국(18위), 대만(40위) 순이다.

전통적인 아시아의 강호 일본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대다. 역대 전적에선 32차례 만나 한국이 4승 11무 17패로 열세다.

하지만 한국은 올해 2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준우승에 이어 지난달 강호 캐나다와 원정 평가전에서 0-0으로 비기는 등 벨 감독의 지휘 아래 '단단한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선 일본과도 1-1 무승부를 거두며 선수들이 자신감을 충전했다.

이번 한일전을 앞두고 여자축구 대표팀의 이영주(마드리드CF)는 "일본이 강팀인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라는 생각은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아 역시 "(일본이) 엄청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벨호는 지소연(수원FC), 조소현(토트넘), 이영주 등을 포함한 24명의 '정에 멤버'로 대회에 나선다. 이에 맞서는 일본 역시 하야시 호노카(스웨덴 AIK) 등 해외파 선수 일부를 불러들였다.

/연합뉴스

스미스, 디오피 '클라레 저그' 잡았다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서 사상 최초로 20언더파 우승

캐머런 스미스(29·호주)가 '골프의 고향'으로 불리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사상 최초로 디오피 20언더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의 19언더파였다.

스미스는 18일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주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7313야드)에서 끝난 제15회 디오피 골프대회(총상금 14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

디오피에서 20언더파로 우승한 것은 2016년 헨리크 스텐손(스웨덴)과 울해 스미스 두 명이다.

당시 스텐손은 세인트앤드루스가 아닌 로열 트룬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린 디오피에서 20언더파로 정상에 오른 것은 스미스가 처음이다.

이 코스에서 열린 디오피 최다 언더파 우승 종전 기록은 2000년 우즈의 19언더파였다.

스미스는 국내 팬들에게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니지만 이 대회 전까지 세계 랭킹 6위였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이번 대회 포함 6승을 달성한 톱 랭커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PGA 투어 사상 단

일 대회 최다 상금인 360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이번 디오피 우승 상금은 250만 달러다.

장타자는 아니지만 퍼트가 그의 장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세계 최고의 퍼트를 가진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고, 그는 이번 시즌 라운드 당 퍼트 수 27.92개로 4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8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에서는 퍼트 18개로 18홀을 마치는 진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또 2020년 마스터스에서 준우승할 때는 4라운드 모두 60대 타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스미스만 가진 기록이다.

이날도 스미스는 퍼트 29개로 그린 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17번 홀(파4)에서 매킨로에게 1타 앞서 있던 스미스의 두 번째 샷이 그린에 약간 못 미치는 곳에 떨어졌다.

공과 홀까지 약 20m 거리였는데 왼쪽에 벙커가 도사리고 있는 오르막을 남겼다. 여기서 스미스는 퍼터로 공을 오르막에 태워 보냈고, 공은 홀 약 3m 거리에 놓였다.

만만치 않은 거리의 파 퍼트를 넣고 1타 차 리드를 지킨 스미스는 마지막 18번 홀(파4) 버디로 1타 차 2위에 오른 캐머런 영(미국)과 2타 차 3위가 된 매킨로에게 추격을 따돌렸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베테랑 측면 수비수 김수범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김포FC에서 수비수 김수범(32·사진)을 영입했다.

김수범은 2011년 광주FC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뒤 통산 203경기에서 출전해 4골 1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베테랑 측면 수비수다.

전남은 "김수범은 공·수를 책임질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다"며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김수범을 통해 날카로운 크로스와 패스로 상대 문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수범은 "축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하게 돼 매우 좋다"면서 "중간에 합류했지만 빨리 적응해 팀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 "홈이나 원정에서 전남 팬분들이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응원해주시는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수범의 노력함을 더한 전남은 하반기 반등을 노린다.

지난 7월 10일 충남아산과의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4 대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지난 17일 안방에서 열린 김포FC전에서도 0-1로 지면서 연패에 빠졌다.

전남은 점유율(63%)과 슈팅(10개)에서 김포에 앞섰지만 후반 28분 박대환에게 허용한 골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승리를 내줬다.

전남은 24일 오후 6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를 통해 연패 탈출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